점검내용의 다양화로 보험기술 개발에 노력

우 무
〈점검3부 부장〉

1. 머리말

최근 서구 선진국은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서구 선진국이 300년에 걸쳐서 이룩한 산업 설비와 기술을 30년이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산업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고도의 산업 설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산 기술이나 품질 관리 기술은 깊은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투자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위험에 대하여는 듣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하여 어떻게 관리를 하여야 경제적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처럼 보여진다.

우리 나라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면 주로 가까운 일본등에서 자문을 받거나 정보를 구하는데 일본의 위험관리 학회장을 지낸바 있는 한 학자에 의하면 "일본의 위험관리 수준은 미국을 대학생, 영국을 중고등학생이라고 할 때 일본은 유치원생이나 국민학생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한바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되면 화재는 없어질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한 화재 전문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그 나라의 국가 기술 지수와 화재로 인한 인구당 사망자의 수는 비례한다고 한다.

또한 화재에 소모되는 총경비 즉 화재손실액을 유럽의 14개 국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나라 GNP의 약 1%에 해당한다고 하니 우리 나라 역시 경제의 성장과 산업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여도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화재에 따른 소요 경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화보법과 안전점검

우리 나라에서는 '70년대 초에 대연각, 시민회관 등 일련의 대규모 화재 발생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다. 동 법에서 정해진 특수건물은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고, 또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였다.

동 법에 의하여 손해 보험 회사에 의해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설립되고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점검과 이에 대한 조사, 연구, 계몽 등의 업무를 실시토록 한지도 어언 19년에 접어 들었다.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방재(Risk control)와 보험 언더라이팅(Insurance underwriting)의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법으로 동시에 행하도록 규제한 독특한 형태인 것이다.

미국에서 1835년에 시작되어 지금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HPR(Highly Protected Risk)에 대한 제도와 유사하며 설립 당시의 화재 보험료는 100달러당 63센트 였으나 지금은 3센트로서 불과 4.7%수준으로 보험료가 감소하였다. 이는 방재 기관의 헌신적인 화재 예방 활동으로 그 손해가 감소된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미국이 '80년 경에 HPR요율을 갖고서 일본에서 보험 영업을 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함에 따라 HPR요율보다 높은 일본의 화재 보험 요율로는 경쟁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대응 요율로 개발하여 시행한 것이 고액 중요 물건에 대한 '특별인정할인요율 제도'라고 한다.

이 요율 제도의 특징은 HPR 요율과 같이 보험 대상 물건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하여 관계 위험

요소를 요율에 반영하는 것이다.

3. 안전점검과 위험관리 활성화 방안

협회 안전점검은 화재 위험에 대한 방재 활동중의 하나이며, 방재 활동은 위험관리의 두가지 기능중의 하나이다.

또한 협회의 안전점검은 특수건물에 대해 화재 위험을 발견, 분석하는 위험관리의 한 과정이며 화재 위험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양분한 것이 방재와 보험이다.

이들 두 가지 대책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즉 방재 대책을 잘하면 화재로 인한 손실이 감소하므로 보험 요율의 인하 또는 할인 혜택의 확대 등 상호 보완적인 이익을 주게 된다.

따라서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방재 요소와 보험 요소를 동시에 확인하므로서 기업이나 점검자의 입장에서 보면 화재 위험 하나에 대한 두 방향의 위험관리를 동시에 확인내지는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관리 활성화 방안으로는 다음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위험관리는 기업 경영자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므로 특수건물 소유자나 기업의 경영자는 안전점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로 기업에 잠재된 각종 위험이 사실대로 파악·분석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제공과 협조가 필요하다.

간혹 안전점검에서 지적을 받으면 행정 명령이 발부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위험 공정이나 위험 물질들은 은폐하다가 그 취급을 잘못하여 사고를 낸 경우도 있었다. 막연한 안전 기대 심리와 그동안의 무사고로 방심한 나머지 안전 대책에 소홀하게 된 사례로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경우 사전에 노출을 시켜 안전 대책을 수립하였다면 사고는 없었거나 경미하였을 것이다.

협회의 점검자는 특수건물의 관리를 위한 방재 기술 자문 역할을 하며, 관리팀의 일원으로서 건물 및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 화보협회나 점검자는 최신의 기술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안전점검에 응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 대규모 위험 물건에 대하여는 위험의 각 요소 즉, 방화 설비의 관리 상태·화재의 경력 등이 보험 요율에 반영되어 기업의 위험 요소를 개선, 유도할 수 있는 미국의 HPR과 같은 보험 요율 제도의 실행이 필요하다.

기업 위험 개선에 따른 투자가 바로 보험료로 환급되며, 또한 위험 개선으로 기업이나 보험 회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셋째, 방화 안전 관계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검사나 점검을 관련 위험의 이해 당사자인 보험 회사나 관련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시켜 안전기준의 향상과

새로운 방재 기술 보급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관계 법규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일례로 일본과 미국에서는 보일러 검사를 보험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다.

넷째, 영국과 미국에서는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시험소에서 인증하는 방화 안전제품을 사용시 화재 보험료에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영국에서는 소방 설비 공사업자까지 인증업체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업체가 시공하여야 보험료에 할인 혜택을 준다. 이는 신제품이나 신공법, 신기술의 활용 촉진과 개발 장려의 한 방법이다.

우리 나라에도 보험 사업자가 설립한 방재시험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대규모 Plant 와 대형 건물의 건축시에는 그 계획 단계나 설계 단계에서부터 방재부문에 대한 기술 자문을 받아서 시공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은 물론 완공후 보험 요율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재 완공된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기준에 미달되어 문제시되는 방화구획, 피난계단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시설 보완 등은 시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설계 단계에서부터 방재 전문가들이 참여, 종합적인 방재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협회에서는 동 업무에 대하여 도면 검토, 기술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있기를 기대한다.

여섯째, 신재료, 신제품, 신공법, 신공정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하여는 방화 안전 관계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 새로운 위험을 제도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석유 화학 제품의 제조 공장에는 많은 위험이 잠재하고 있고 이들 공장에서 배출되는 위험물질의 유출로 인한 화재·폭발·환경 오염 등 많은 재해가 우려되고 있다.

일곱째,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위험관리는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재해의 근본 해결은 아직도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 화재에 대한 기초적인 실무 교과서로 미국 방화협회의 방화 핸드북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화재 및 폭발·유해 물질의 방류 등 위험관리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립, 교육 훈련시키는 국가적인 대응책이 요망된다.

협회 부설 방재시험소에서는 방화관리 실무자와 전문인을 위한 교육 Program을 개발하여, 저렴한 경비로 국내 유수의 산업체나 대형 건축물의 안전관리자, 관련 학계 및 단체에 방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방재를 통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보험업계의 노력이라고 평가해야 하겠다.

4. 맺는 말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는 작년 9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상 지역이 울산 석유화학단지와 수원 대단위전자공장 등이 점검대상 건물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대단위 공장 위험관리 점검 기술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간 방재 중심의 안전점검 보고서를 개정하여 과거에 실시하던 Underwriting Survey에 필요로 하는 보험가액 추정(건물·기계·수용동산 등)과 보험요율 산출을 위한 자료, 보유에 필요한 위험의 분할, Top Risk, EML 등 위험 평가 기술 축적 등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의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손보업계의 국제 경쟁에 따른 보험 기술(Underwriting)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방면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Risk Consultant에 대한 국제적인 기관으로 살아 남기 위한 innovation에 노력하고 있으나 보다더 중요한 것은 관계 당국의 지원과 손보업계의 적극적인 활용은 물론 전폭적인 지원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고는 한사람이 일으키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